

第20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9年9月21日(火)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 2. 19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教育部所管
- 3. 서울大學校實驗室安全事故 및 收拾對策經過報告

審査된案件

- 1.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 2面
- 2. 19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教育部所管 ..... 2面
- 3. 서울大學校實驗室安全事故 및 收拾對策經過報告 ..... 39面

(14시14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金聲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세 명의 석·박사과정 연구원에 대하여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이 이렇게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유능하고 전도가 창창한 젊은 인재가 세 명씩이나 희생되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가족의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나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98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미 금년도 3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대학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소위 BK21사업은 아직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참여대학이 선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탈락대학 등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 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며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사업목표가 심하게 변질되어 있는 마당에 연내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다면 이 사업의 연내 시행을 보류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도 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로서는 자존심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이 사업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심사할 98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우리가 곧 착수하게 될 금년

도 국정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의 법률안 심사 등에 적극 참고 내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가. 教育部所管

2. 1998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教育部所管

(14시17분)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사와 더불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안 계시니까 李元雨 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교육부차관 李元雨입니다.

먼저 교육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咸鍾漢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1998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그리고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전에 차관, 장관이 오늘 참석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참석 안 하셨는데 그것을 차관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셔야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아까 위원장님께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APEC총회 다녀오시고서 처음 국무회의를 3시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동티모르 군부대 파견문제 등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차관인 제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沈珖漢 학교정책실장입니다.

車炫直 평생교육국장입니다.

金永植 고등교육지원국장입니다.

金玉福 교육자치지원국장입니다.

李海英 공보관입니다.

具寬書 감사관입니다.

李承茂 교육정책기획관입니다.

高用 국제교육협력관입니다.

李修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입니다.

金正基 교원정책심의관입니다.

姜秉雲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成茂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金成東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李成一 국제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金孝秀 학술원사무국장입니다.

朴慶淑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韓相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입니다.

金在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朴錫武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宋準五 한국교육방송원 총괄본부장입니다.

徐三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입니다.

權泰竣 한국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金河準 한국교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琴承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李鉉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姜成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朴容眩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입니다.

郭柄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입니다.

朴道淳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입니다.

李茂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 교육부 간부, 소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1998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咸鍾漢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의 양과 질이 국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서는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이를 위한 교육 체제를 다시 가다듬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타고난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펴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의 기본목표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역량을 집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을 교육재정 운용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학입학제도 마련을 계기로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새 학교문화 창조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시·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평가와 연계시킴으로써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가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늘어난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교직수당을 인상하고 교원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원복지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째, 대학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을 그 특성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 지식과 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는 지역 우수대학으로 특화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유도하였으며 대학교육의 내실화 기반 구축을 위한 대학 시설·설비 확충과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연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평가와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단계의 직

업교육을 내실화·다양화하고 전문대학의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학점 은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 인정기관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실직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정보화·세계화 부문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보 소양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초·중등학교에 학생 교육용 및 교원용 PC보급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교육정보를 교육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내 전산망 및 학교간을 연결하는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일 교원 및 학생교류 확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교육 협력증진, 국비 유학생 파견, 국제전문 인력양성사업과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 세계화와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분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소속단체인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합하고 첨단 학술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에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교육재정 부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현장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교육개혁 구현에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을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적인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基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8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세입·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린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 세출예산 이·전용현황,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1998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액 2,632억원보다 6.1% 증가한 2,79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액 대비 18.5% 증가한 5조 4,229억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7,000억원 전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은 98년 교육부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17조 7,92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2조 1,310억원이 집행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는 4조 8,20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재정용자·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8,19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2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요약하였습니다라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631억원이고 수납액이 2,792억원으로서 예산액과 그 수납액의 차액이 161억원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국립학교 입학시험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한 수험료 수입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조 563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2조 2,386억원으로서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이 1,8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6억 7,700만원이고 불용액은 40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4조 5,768억원이었으나 97년도 교육세 이월금 9,197억원이 포함되어 수납액은 5조 4,22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조 5,768억원, 예산현액이 5조 5,168억원, 지출액이 4조 8,201억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이 9,3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09억원이었고 불용액은 1,057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수납액,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모두 7,000억원입니다.

재정용자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925억원, 지출액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05억원, 예산현액 462억원, 지출액 224억원으로서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이 15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원입니다.

불용액은 18억 9,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이 모두 224억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수의대학 이전,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 이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금오공과대학교·대전산업대학교·밀양산업대학교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97억, 예산현액 418억, 지출액 267억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이 이월액 발생으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지출내역은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151억원등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초·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성존중 교육지원에 189억 8,200만원을 썼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7억원, 1종 교과용 도서편찬에 44억, 초·중등 교육과정 평가에 1억 2,300만원, 교과 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25억, 연구학교 운영·지원에 1억, 열린 교실 수업체제 혁신에 34억 9,200만원, 영재교육의 강화 등에 2억 3,900만원, 국립대 부속 초

·중·고 지원에 72억원입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122억9,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수학교신설 49억원등 특수교육진흥에 98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급식관리에 22억7,900만원, 유아교육지원에 1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원복지증진에 1,469억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에 3억 6,300만원, 사립학교교원 연금부담금 지원에 1,465억7,900만원, 방송통신 교원 연수교재 개발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에 모두 14조8,443억2,5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교부금으로 9조3,240억원, 그중에서 봉급교부금이 2조7,590억, 경상교부금이 6조2,149억, 증액교부금 3,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세인 양여금이 4조8,201억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7,0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육환경개선 관리에 1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에 69억7,800만원, 재해대책비 부족분 지원에 48억6,900만원, 초·중·고 영어·과학 보조교사지원에 9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교육 지원에 1,209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공고 시설·설비 확충에 158억원,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실시에 33억 7,100만원, 공고 「2·1체제」운영에 19억1,400만원,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충 및 내실화에 972억7,9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계 고교 학과개편에 2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지원에 1,69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전문대 시설 확충에 217억,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에 34억6,600만원, 공·사립 전문대학지원에 954억, 공업계 전문대학육성지원에 100억원, 전문대학 자구노력 지원에 300억원, 전문대학 산·학협동 지원에 49억, 전문대 연구소 지원등에 3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으로 모두 69억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업대학 교육지원에 928억9,100만원이 쓰여졌습

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대학 시설·설비 확충에 816억원, 산업대학 자구노력 지원에 70억원, 산업대학 우수연구소 지원에 20억원, 산업대학 특성화 지원에 20억원, 산업대학 교수 산업체 연수지원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육의 내실화에 7,395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2,508억8,500만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864억8,100만원,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에 1,060억원, 사학진흥기금으로 850억원, 교육차관사업에 2,082억9,600만원, 대학교육협의회 보조등 2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에 1,300억원이 쓰여졌습니다.

공과대학 중점지원에 400억원, 국·사립대 자구노력 지원등에 730억원, 대학원 중점지원에 170억원, 대학의 교육연구력 강화에 1,799억8,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국립대 교원연구비 보조에 528억9,400만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985억,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에 37억8,800만원, 고전국역사업 지원에 26억7,300만원,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등에 12억1,500만원, 대학연구소 지원에 189억6,700만원, 대학졸업자 대학원생 유급조교 지원에 19억4,8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대학생 지원에 390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77억5,400만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151억원, 사도장학금 지원에 137억6,500만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18억7,700만원, 대학생 학·예술활동 지원에 5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세계화 및 평생교육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화사업에 989억4,4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32억원, 첨단학술정보센터 운영지원에 37억9,100만원, 대학교육정보화 지원에 138억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422억6,000만원, 교육행정업무 전산개발에 6억6,000만원, 민간개발 S/W보급에 21억9,400만원, 초·중·고 학생부 전산화에 170억5,800만원, 대학도서관·박물관 자료 및 유물정리에 5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교육에 모두 356억7,6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초·중등교원 국외연수에 22억2,200만원, 원어민 강사 활용에 47억6,200만원, 초등영어교사 연수에 12억9,700만원, 외국어교원연수원 건립에 66억4,700만원,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60억원이 지원되었고 국비유학에 25억5,400만원, 국제교류증진에 13억원, 국제·이해교육 지원에 6억9,900만원, 한국 어능력평가사업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교육지원에도 205억3,8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재외민족관 설치에 14억2,400만원, 재외동포 교육에 189억5,800만원, 귀국학생 교육지원에 1억5,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평생교육에는 54억5,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5억8,000만원, 평생교육 진흥 지원에 4억2,600만원, 방송통신대 CA-TV 운영지원에 35억6,200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7억4,900만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지원에 1억300만원, 사회교육기관 지원에 3,100만원, 실직자 재취업교육 지원에 204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지원에 415억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67억원, 한국교육방송원 193억9,50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 81억9,000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억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대병원 지원으로 494억1,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병원 출연에 350억, 부산대학교병원 출연에 18억6,900만원, 전북대학교병원 출연에 15억원, 충남대학교병원 출연에 20억7,0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 출연에 12억7,500만원, 경상대학교병원 출연에 9억8,8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출연 18억원, 경북대학교병원 출연에 18억9,700만원, 강릉대학교치과대학병원 출연에 29억5,2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지원 운영비 등으로 5억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속기관 운영에 51억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술원에 17억5,200만원, 국사편찬위원회에 3억9,600만원, 교육행정연수원에 4억6,700만원, 국제교육진흥원에 23억2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에 2억8,2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합쳐서 이용 57억7,800만원, 전용 184억7,700만원, 모두 242억5,500만원이 이·전용되었습니다.

먼저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인건비 불용액을 다른 기관의 인건비 부족액에 이용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용내역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 부족, 공공요금 부족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676억7,7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모두 6,957억3,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시설사업 절대공사가간 부족 및 납품기간 부족, 계약체결 지연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99년1월1일부터 99년1월15일 세입정리기한 관개로 발생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교육비소관 예비비지출결정액 및 배정액은 689억7,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75%인 517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7%인 116억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인 55억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에 5억4,200만원, 고학력 미취업자 지원에 199억4,800만원, 재해대책비로 48억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차관원리금 상환 원화부족분 4억4,700만원은 예비비 신청시에 환율이 2,000원대였습니다. 연말에는 1,300원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지출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59억4,100만원, 직업훈련 지원에 204억2,7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尙元鍾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8년도 교육부소관 결산검토는 교육부소관 주요사업들 중에서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교육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31억원이었으나 당초예산액보다 161억원이 증액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중의 하나는 이미 지난해 결산검토시에도 각급 학교의 입시전형료에 대한 세입계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98년도 각급 학교의 입시원서대,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등의 수입대책경비도 예산계상인원을 세입예산 편성시부터 실제 수납예산인원의 70%를 기준으로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수납액은 예산액 106억 대비 173%에 달하는 183억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유지매각내에서 118억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서울산업대 토지의 일부가 91년2월28일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되어 서울시 산업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한 매각보상금을 서울시로부터 징수하여야 했음에도 97년까지는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9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매각보상금을 세입에 계상해 놓고도 서울산업대학과 서울시간에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징수결정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118억원의 세입감소를 초래하고 국유지공공편입보상금 감소로 결산처리하였는 바 이는 세입예산편성 및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9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총 9조3,240억원으로 전액 교부되어 지출되었으며 교부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이 90.2%, 특별교부금이 6.1%, 증액교부금이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8조4,090억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咸鍾漢 위원장, 朴範珍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특별교부금은 총 5,649억9,800만원중 정책

사업에 3,069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547억원, 재해복구비로 32억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나 사건발생시 시·도 교육기관이 재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액을 유보해 놓은 자금으로서 법에서 그 교부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만큼 교육당국이 이 특별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교부대상 및 범위, 교부기준 집행지침 등을 정한 세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시·도에 교부한 특별교부금 집행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시·도 자구노력지원비 총 1,5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증액교부금에서 지원하였는 바 이 사업은 96년부터 매년 시·도 교육청의 행정능력을 평가하여 우수교육청 위주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96년 500억원, 97년에는 800억원이 전액 증액교부금에서 집행한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상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측면에서 볼 때 96년도에는 500억원중 250억원을 97년도에는 800억원중 700억원을 98년도에는 1,500억원중 1,300억원을 차등지원하는 등 계속적으로 차등액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약한 시·도는 더욱 낙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지원예산의 기본비율을 높이고 예산지원의 차등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방과후 특기 및 적성교육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에서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재는 3차에 걸쳐 407억원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교밖의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저소득층 및 실직자자녀 지원으로 이들의 특기 신장 및 바른 인격형성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충분한 사전계획없이 학기도중인 5월에 이 사업예산을 긴급지원함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특기 및 적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지원을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조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농어촌과 도

시의 취약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강사초빙이 곤란하여 현직교사들이 무보수로 일한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시·도에 교부한 특별교부금과 관련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면 특별교부금을 수련원, 다목적교실 등 시급하지 않은 교육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124건에 1,367억원을 교부하였고 또한 고교교육과정통합학교 운영 지원사업 및 주요인사 방문 등 홍보정책사업들과 같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할 교육부 자체시책사업 19건에 1,317억원을 집행함으로써 98년도 특별교부금 총액의 47.5%에 해당하는 2,684억원을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건별로 수시교부신청하도록 하고 건별로 검토하여 교부함으로써 예산집행부적정사례로서 지적받고 대책을 강구토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차체에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증액교부금은 생략하고 대학원중점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기능분화를 통한 대학간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대학원과정의 교육·연구기능 활성화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연구수준제고와 고급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교육부가 5개 대학의 5개 분야를 선정하여 95년부터 99년말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BK21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동안 국고지원금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지원금 770억원중 83.4%에 해당하는 642억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기자재구입비에 53.8%, 시설비에 19.8%, 학생장학금에 19.1%, 연구비에 3.7%, 교직원 인건비에 2.2% 기타 일반관리비에 1.4%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98년8월부터 10월까지 각 대학들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95년 당해연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교수 및 연구인력, 교수여건, 우수학생유치 및 양성, 연구시설·기자재·대용자금 및 연구업적의 계획대비 실적과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그룹을 우수그룹, 중간그룹, 하위그룹, 3개군으로 분리하여 우수관정을 받은 고려대 생명공학원은 기준액보다 4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중간그룹인 한양대 신소재공정공학과와 포항공대 환경공학부는 기준액을 지원하며 하위그룹인 서울대 자연대학과 연세대 이과대학은 기준액보다 2억원씩 삭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대학원중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각 대학의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했음에도 매년 각 대학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자율에 맡기고 사업 실시후 3년반이 지나서 중간평가를 하여 이를 토대로 비로소 차등지원을 한 것은 교육부가 통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이유가 중간평가결과 목표이행도가 80%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했음에도 평가위원 8명중 6명을 사업선정된 5개 대학교수들로 구성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교육부의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추진기본계획에 지원예산은 건축·시설비를 제외한 연구활동을 위한 직·간접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의 경우 지원예산의 상당부분을 본래 사업목적과 무관한 외곽시설이나 연구시설 건축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년도 국고지원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학술진흥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정적 편의성과 비효



을성을 극복하고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연구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98년도는 전체 학술연구 조성비 985억원의 11.8%에 해당하는 116억1,800만원을 간접연구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98년12월 전국 4년제 181개 대학 및 전문대학 140개교를 97년 기준으로 조사한 대학의 연구비중앙관리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중 연구비관리규정이 있는 대학은 전체의 74.1%인 238개 대학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연구관리 전산화 수준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은 전체대학의 27.1%인 49개 대학이 그리고 전문대학은 전체의 84%인 118개 대학의 서류관리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연구비의 회계장부는 4년제 대학의 77.9%에 해당하는 141개교의 대학이 그리고 전문대학은 67개교인 47.8%가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사용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금액대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30.3%에 불과하였으며 30% 미만인 학교가 4년제 대학 46개교, 전문대학 61개교로 전체 321개교의 3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의 결과로 비추어 보아 교육당국은 연구개발비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보완과 전산화 수준제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지원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부소관 출연금예산은 총 2,198억 7,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억1,900만원은 국가재정 등의 사유로 배정을 유보하고 나머지 2,194억5,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책지원사업을 위하여 해당 대학에 980억원을 집행하였고 9개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시설과 기자재 확충사업을 위하여 350억2,700만원, 우수인재의 교직원인을 위한 사도장학금으로 137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원 등 8개 출연기관에 724억2,500만원 그리고 영재교육 강화사업을 위하여 교육부 본부에서 2억3,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 출연금 집행사업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출연기관에 지원한 출연금집행지원사업을 살펴보면 8개 출연기관은 출연금 예산 총 724억 2,500만원을 출연받아 이중 674억3,000만원을 집행

하고 14억1,24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5억8,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예산상의 인원이거나 사업을 변경하여 운용한데 기인하는 것이며 출연금 집행잔액은 자체수입 집행잔액 및 자체수입 초과액과 함께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당해 출연기관이 결산시 잉여금처리절차에 따라 이 집행잔액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1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은 4억7,673만원 그리고 한국교육방송원은 20억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였으며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우와 같이 집행잔액의 67%가 출연금 예산의 집행잔액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출연금 규모산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금 예산편성시부터 출연기관의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출연금의 소요가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그 배정을 유보하는 방법 등으로 출연금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자체수입예산의 과소계상문제는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98년의 경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체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60%, 74%, 225%로 증가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증가는 출연기관의 자생력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거나 자체수입예산이 해당 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출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급적 수입을 과소계상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의 특성상 자체수입예산을 추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자체수입예산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출연기관의 자체수입예산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예산은 당해 출연기관의 총 소요예산 중 먼저 자체수입예산을 확정된 후 부족한 부

분에 대하여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으로 그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려할 때 출연기관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체수입예산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에서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출연금 예산 72억3,598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자체수입 예산 현액은 13억7,827만원 중 6억6,284만원만 집행하고 7억1,54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체수입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교육부는 출연금 배정방식을 살펴보면 출연연구기관이 분기별로 분기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교부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출연금 예산편성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출연금 청구시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으로는 출연기관이 이미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출연금을 복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과다한 출연금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소관부서는 출연금 예산집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기관이 출연금 교부신청을 할 때에 신청시까지의 출연금 사용실적을 첨부토록 하여 출연금이 출연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 하였거나 출연금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예산배정시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예산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는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예산액이 1,899억7,700만원이었으나 97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77억9,3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203억8,400만원이 집행되고 116억9,2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7억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예산지원사업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조금은 전문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98년도 예산은 4억5,500만원으로서 전문대학 평가사업, 전문대학·공업계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전문대 입시관리 등에 전액지

출되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조금 예산지원사업 가운데 전문대학의 공업계교수에 대한 연수사업은 전문대학협의회가 KAIST와 매년 연수협약을 체결하여 연수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고 각 대학에서는 식비와 교통비를 부담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KAIST와 체결한 연수비는 9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실제 KAIST와 체결한 연수비는 1억5,800만원이며 나머지 차액은 97년도 연수비 부족분 4,600만원과 98년도에 새로 시작된 현장 직무능력개발연수비 등으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전년도에 체납된 연수비를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교육부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KAIST 연수비를 정확히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한 보조율을 정하여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보조금 4억5,500만원을 전액집행한 반면 98년도 자체수입 10억4,560만원 가운데 9억676만원만 집행하고 1억3,884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한 것은 보조금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인 부담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공업계 교수들 자체가 연수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과 각 대학에서도 입시관리 등으로 바쁜 시점인 12월에서 1월 한달간 식비 및 교통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연수를 보내기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직업능력개발연수는 교육부에서 98년도부터 직접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 산업체연수사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어느 쪽에서든지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은 41억4,388만원이었으나 26.6%에 해당하는 11억44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고 예산현액은 30억4,344만원 가운데 61.4%에 해당하는 18억6,980만원만 집행하고 20.2%에 해당하는

6억1,4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교육부 연구개발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 예산의 42.5%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40.5%에 불과하고 불용액도 1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교육부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55.7%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용 및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구개발비가 과다 편성되거나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8년도 연구개발비 전용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용된 예산은 연구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98년도 수탁연구과제가 53개 과제에 수탁금액은 46억1,976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교육부에서 직접수탁한 과제는 39개 과제에 19억9,164만원으로 실제 교육부 연구개발예산 집행액 18억6,977억원 보다 1억2,187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연구개발비 이외에도 출연금 및 경상보조금에서도 일부 연구용역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8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 소속 출연연구기관으로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31개 과제에 11억6,600만원을 출연하였으나 교육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과제 가운데 일부 연구과제들은 사전에 기본연구사업에 포함시켜 조사연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연구개발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먼저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연구개발과제를 채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에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적절하고 활용보급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한편 일 단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되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 한국교육방송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바 98년도는 868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액 53억원과 예비비 150억원 등 예산현액 1,087억원 가운데 1,059억원을 집행하고 9억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은 대학교육정보화,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구축, 초·중·고 학생부 전산화사업, 행정업무전산개발 등 모두 11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통합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첨단학술진흥센터의 예산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멀티미디어교육센터는 정부출연금 132억400만원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예산 47억원을 합한 178억의 예산 가운데 167억원을 집행하고 4억9,9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과 자체자금 세입초과액 6억7,100만원을 합한 98년도 총 집행잔액 12억4,100만원은 99년도 세입으로 전입시켰습니다.

다음 첨단학술정보센터는 사업비 출연금 27억7,100만원 가운데 19억2,700만원만 집행하고 2억8,800만원은 이월시키고 5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기관운영 및 사업비는 예산액 21억 가운데 97년 이월액 16억5,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8억 가운데 3억원만 집행하고 40억6,8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시키고도 전체적으로 보아 집행잔액이 2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학술정보 DB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사업예산 25억5,000만원을 97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집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행정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전산개발 연구비도 예산액 8억9,200만원 가운데 2억6,000만원을 공공요금 부족으로 전용 충당하고 예산현액 6억3,200만원 가운데 불과 7,2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생부 전산화 연구개발비 집행실태도 1억3,500만원 가운데 5,600만원을 전용하고 예산현액 7,900만원 가운데 불과 2,100만원만 집행하고 5,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교육정보체제를 차질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工高「2·1체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시작되어 98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서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과서를 개발하여 시범운영학교에

무상보급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44페이지 아래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5개년에 걸쳐서 시범학교운영과 교과서개발사업을 마치고 99학년도부터는 공고 「2·1체제」를 정규교과과정으로 고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으나 96년에는 96개에 달하던 시범학교가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99년에는 전국의 200개 공업고등학교 중 23개 학교만이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5년간 투입된 108억8,000여만원의 예산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2·1체제」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하는 학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부가 교과서 개발에만 치중한 결과 단위학교에서는 산업체 선정의 어려움, 이원화된 교육과정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가 있으며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학률로 인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인문계 학생의 취업반도 운영하고 있는 등 단위학교의 부담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셋째, 산업체로서도 공고학생의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공고졸업생에 대한 병역연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병원 운영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의 9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흑자운영을 나타내고 있으나 겸직교원 인건비를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하게 전남대병원만이 34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을 뿐 서울대병원은 97억원의 적자를, 그리고 7개 국립대병원은 평균 14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의 주요원인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관리비의 비중이 경영이 우수한 사립대학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 가운데 인건비 및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58.2%로서 사립대학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의 4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있고 기타 국립대병원도 평균 54.1%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朴範珍 간사, 威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로 국립대병원 중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전남대학병원의 경우는 47.6%로서 세브란스병원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부조직통·폐합, 보직 및 인력감축,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의 합리화 등을 포함하는 각 병원별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추진실적평가를 통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외민족교육관 건립사업과 국제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 함)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열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열 분 위원님께서 토론을 계속해서 하시고 정부측이 답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許男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677억이나 되는데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인지,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민족교육관 건립사업에 98년도에 100억을 불용하고 97년도에도 100억이 불용되었는데 해마다 불용되면서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편찬에 있어서 불용액이 97년도에도 11억이나 되고 98년도도 2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교과서가 부실하게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39억2,000만원이나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하고서도 교육부의 모든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89년도에 3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서 그것으로 끝마칠 작정인지 아니면 철저히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과학진흥기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더 확대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일반적으로 모든 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진흥기금도 아울러 없애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런데 과학을 더 확대하자고 하는데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 주머니는 전부 없애고 필요하면 국가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예산을 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산도 안 따오고 이것도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 이후의 자세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현 정부가 1997년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교육의 내실화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의 6%로 확대해서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도모하겠다 라고 전 국민에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공약들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재정 6%를 확보하겠다는 이 공약도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고 실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 GNP 대비 교육부 예산을 보면 96년도에는 3.7%, 97년도에는 4.1%로 증가를 하다가 98년도에는 4.1%로 정체되어 있었고 99년도에는 3.8%로 오히려 심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인기위주의 교육정책 남발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지 정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 예산확보에는 실패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대선공약에서 말한 GNP 대비 교육재정을 비교해보면 97년도에 4.6%였었습니다. 거의 전 정권에서 목표한 5%에 근접한 수치로 가다가 98년도에 4.5%, 99년도는 추정치입니다마는 4.3%로 6%는커녕 달성되어가던 5%에서조차도 멀어지고 있어서 이 정부의 교육관이 어떠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金許男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육재정의 準值인 교육부예산 확보도 힘든데 확보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IMF 상황을 핑계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방패삼아서 이월·불용을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주어진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은 예산편성 당시의 치밀하지 못한 점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거울삼아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특기 및 적성교육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아 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 7월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작년까지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의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알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초법적 발상에 의한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서 98년12월 현재 학생수를 볼 것 같으면 초등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4%,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57%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국·공립이 담당하고 있으나 중등교육의 상당부분은 사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수는 22.5%인데 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1.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단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압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이고도 어찌면 보복적인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9년도 상반기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마음이 아주 큼니다.

지난 6월까지 국·공립과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미설치별 지원내역을 교육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아직도 작년과 같은 실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해서 국·공립과 사립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사용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초·중등 및 특수학교 노후시설의 개선과 교육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계의 연간규모는 7,000억원이고 2000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노후해서 매년 노후시설이 증가되고 또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1년이면 없어지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이후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떤 방안으로 구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7,000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학교가 3,000여개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교가 아직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 및 개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받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73개교에 99개동이고 철거대상인 E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19개교에 21개동으로 총 92개교에 120개동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지은 지가 오래된 학교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사고공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D급으로 판정받은 학교는 30개교 42개동이고 E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9개교에 10개동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보수나 철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사용 중인 학교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 D급 판정을 받은 학교 중 6개 학교 6개동과 E급 판정을 받은 학교 중 3개교 3개동이 1998년 보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계속 사용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수리를 긴급으로 요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체제로 인해서 짓다가 중단된 학교도 있고 학생들을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재난위험

시설에서 수업반도록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치겠다는 헌 정부와 교육부의 기본입장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집행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98년에 총 5,649억원이었는데 이 중 정책사업에 3,069억,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547억 이렇게 지금 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지난 5월에 실시한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각 시·도 교육청에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학교들에 대해 철거 또는 보강을 위해 집행한 특별교부금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업계 고교 2·1체제의 허구성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생략을 하고, 즉 결론적으로 교육기능이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 재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만족을 못 느끼고 지금 그야말로 갈 데가 없어서, 또 인문계 고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의 학과와 학교 이름이 자꾸 변해요. 지금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전자기계고등학교, 생활과학고등학교 이런 등으로 바뀌고 있지만 교과과정 그리고…… 아까 31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적합하지가 못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산업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명칭 변경 이후 교육과정이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또 공교 2·1체제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현재로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또 매년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중학교 3년생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대부분 인문계로 많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정말 획기적이고 종합적으

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장관이 안 나오셨는데 차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결산보고서 잘 읽어 봤습니다마는 尙元鍾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참 잘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일인지 결산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매년 불만스럽게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결산을 제대로 해야만 제대로 된 국정심의회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다행히 尙元鍾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결산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시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각자 소관부서에 있는 분들은 가슴이 찡찡했었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잘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물론 지난해 98년도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기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경우가 없게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尙元鍾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술연구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각 대학에 지금 학술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보고서 27쪽을 보면 연구비 관련규정, 그런데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각 대학에 지원을 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가 대단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이 있는 대학이 현재 74%밖에 안 됩니다. 전 대학에 연구비 관리규정이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있는 대학이 74%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6% 정도 대학은 규정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전산화되어 있는 대학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금액에 대해서 개인교수들이 제대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냥 돈만 주었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한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BK21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 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 가지고 국민의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학재단 그리고 여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유사논문으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아마 학술진흥재단에서 컴퓨터화 해가지고 교육부 내에서 돌아가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 것 같은데 과학재단 이것은 교육부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과학분야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했는지 또는 유사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체크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지적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尙元鍾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 전부를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은 맞추어 보시고, 저도 챙겨 보려고 그러는데 내년엔 다시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월비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년간 결산 현황을 비교해 보면 98년 이월액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되어 있고 또 97년은 96년보다 증가되어 있고 3년 동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년에는 118억으로 약 32.7%였는데 97년에 이것이 또 늘어나 가지고 157억원으로 35.9%가 되고 98년에는 220억원으로 늘어나서 47.5%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좀 살펴 보면 주로 교육기관 시설사업 등 이뤘는데 공기부족, 납품기간 부족 이것이 전체 이월액의 80%에 해당하는 175억원입니다.

다. 그리고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이런 것이 한 20%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의 농생명대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98년 12월 31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해에 했다는 것을 남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대 해양산업대 이전사업의 경우도 98년 12월 15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공주대 산업과학대 이전도 98년 12월 10일 착공, 금오공대 이전사업도 12월 3일 착공, 거의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액하고 이월액을 합치면 96년에 예산 대비 44.4%가 됩니다. 97년에는 40%, 98년 예산 대비 5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절반 가까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교육시설이나 설비가 완공이 안 되고 지연되어 가지고 각 기관의 교육개혁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러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사업비가,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까라는 이 점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국립특수학교 신설사업의 경우에 특수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8년에 총예산 105억 중에서 53%인 56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도 원래 부족한데 부족한 예산의 반 넘는 돈을 그냥 이월시켰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承國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우선 교육부 보고서 9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1,077억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경기도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돈을 안 써 가면서 한쪽에서는 콘테이너에서 공부한다 이런 것은 예산집행하는 집행처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

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관공서나 보면 똑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무언가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이 떨어지고 3개월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한다든가 또는 2개월만에 안 하면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금년도 넘어가면 없어진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속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계약만 해놓고 넘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 주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것이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은행에다 넣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예금금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朴承國委員 그것이 제가 그 동안 하나의 문제로 발견한 것인데 벌써 교육부에서는 100억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래서 업자가 저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놓아 두면 금리가 생기니까 100억을 열 달만 놓아 두면 3억 내지 5억이 생기는데, 또 금융기관에서는 예치하라고 로비를 하고 이러니까 발주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교육부에서 회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놓아 둘 필요 없이 빨리 집행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3개월이라든지 시한을 정해서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안 되면 교육부로 반납하는 제도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 드려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48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재해대책비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 32억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해복구비가 모자랄 경우에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데 특별교부금에서 재해복구비 특별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써야 하는가? 이 2개 항목에서 같은 내용의 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위 지금은 BK21 전판이지요. 대학원 중심대학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대학이 고려대학, 서울대학 이래 가지고 190억, 152억, 153억, 134억 해가지고 5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온 돈의 평가를 했는데 연구



평가를 한 평가단의 평가위원들 중 서울대학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거짓말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기 대학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그 평가내용을 보면 제일 우수해야 할 서울대학 자연과학대학이 5개 대학 중에 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BK21이 바로 서울대학이라고 꼭 우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학원 중심대학 지원비를 5년간 쓴 결과를 보고도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BK21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근거자료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국, 학교정책실, 학술연구지원국, 평생교육국 이렇게 있는데 모두 불용액이 6억1,40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구를 각 국에서 했으면 반드시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운영에 5억4,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 보면 위원수 40명, 기능·현장 중심 교육개혁 지속 추진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억4,2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지출명세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朴承國委員 그 지출명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樂均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많이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薛勳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부의 예산 확대를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내놓을 만큼 교육비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크게 갖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월액·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본래의 사업 외에 사업과 무관한데도 사용이 되었고 또 교육정보화 사업과 같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마저도 제대로 사용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교육부가 상당한 문제로 지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획력이 부족했거나 추진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교육부가 상당히 자성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 불용액 가지고 비판을 받을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비용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한 것까지도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교육부 전체의 경우는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기에는 문제가 크다고 보여져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과대학 중점 지원사업 부분에서 이것이 앞으로 있을 BK21하고도 상관되고 시사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동안 8개 대학에 50억원씩 2,000억원을 지원하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도 98년도에 400억을 모두 지원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9년2월 기준해서 8개 대학의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평균 8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으로 일시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 334억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규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5년간 집중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대학들에게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적으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각 대학들이 실제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5년동안 해마다 평가를 해서 각 대학별로 차등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직접적인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종합적인 평가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이 관심사항입니다. 사업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2,000억이라는 막대한 손

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지원에 의한 실직자 재취업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실직자 재취업교육은 IMF구제금융상황에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환경 제공사업으로 총 300억원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거기의 요청에 부응한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억원 사업 중에서 16%인 49억원이 현재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실직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놓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집인원이 미달되었다든가 중도탈락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의 32%에 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15%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사업을 재고하거나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원인이 있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다른 방법의 운영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강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렇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전문대학 지원과를 중심으로 실직자 및 신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의 실직자 재취업교육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이 교육은 이러한 결과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부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좋은 점으로 그동안에 비판만 많이 받으셔서 저는 이런 경우는 한번 잘한 일로 밝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초등영어 교사의 연수와 관련한 것입니다.

초등영어 교사의 연수는 원래 97년에서 99년까지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시행중인 사업이었습니다. 98년도 결산에서 불용액 25억4,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원래 예산액 38억3,700만원의 6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원어민 강사 활용사업이 축소되면서 그 절감한 예산을 초등영어교사 연수사업에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로서 이런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예산을 25억4,000만원이나 절감을 하면서 원어민 강사의 활용사업과 초등영어교사 연수사업 두 목표를 만족시킨 그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98년도 축소된 원어민 강사활용사업이 올해는 몇 명을 대상으로 또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센터 설립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제교육센터 설립이 총 176억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14억9,900만원의 예산을 98년도에 세웠다가 IMF위기로 98년도 제1회 추경에서 토지매입비 일부만이 반영된 6억9,9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설립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서 이 사업은 착수되지 못한 채 사업비 6억9,900만원만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외국인 학생, 교수 대상으로 하는 시설비가 추가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획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계산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대, 연대, 외대 그런 데에 대학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를 지원해서 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이런 국제교육센터 설립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전체 교육비 여건에서 전체 예산형평에도 이런 것이 맞는지 의문이 납니다. 보다 더 절실한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점을 재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이월액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3분의 2정도라면 대단히 과다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9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98년도에 3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종료되었습니다. 98년 종료사업을 평가해 볼 때 본 사업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끝을 냈다 하는 그런 인상이 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개조해서 보육시설을 짓는 정도의 기초시설비만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개 도시의

경우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의해서 98년도에 확충된 시설이 121개소인데 반해서 1년만인 99년9월 현재 시설수는 무려 87개소로 28%나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다면 여교원의..... 꼭 여성교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교원의 복지증대에도 또 유아의 교육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진하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학술연구구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발표된 것입니다. 학술진흥재단에 의하면 1998년 연구사업의 결과논문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98년 사업결과는 97년까지의 상황과 유사하리라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해보면 이것도 薛勳 위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C·D 등급 받은 연구논문이 상당한 숫자 있습니다. 부분으로 보면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것으로 본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연구결과가 이렇게 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연구결과논문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C·D급 판정을 받은 연구결과논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상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8년에 실시된 교육부와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대부분 단순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으면 재정운용상의 후속조

치가 뒤따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기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도 후속조치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이행한 데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적된 경우 임시조치에 그치지 말고 익년 예산배정 때 반영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전반에 함께 반영되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저도 우리 尙 위원이 검토한 보고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여건 수용시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수용시설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초·중등교육은 어느 특정지역일지라도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에서는 쾌적한 교육시설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또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 인천지역의 교육수용시설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기가 우리 나라의 수도권으로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90년 175만에서 99년에 251만으로 변했고 학생수는 36만3,000에서 45만2,000, 48만4,000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이 4개교에 22학급이고, 물론 이게 올해 더 늘어납니다. 조립식 임시교실, 이게 컨테이너 학교입니다. 이게 7개 학교에서 48학급, 이것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 43명, 중학교가 42명, 고등학교가 한 50명. 그리고 43학급 이상의 과대학교가 64개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장 열악한 계양구 같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론 컨테이너 교실이나 2부제 수업이 있고 중학교 학생이 계양구내에 1만2,000명인데 4,000명 정도가 고속도로를 건너서 타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1만명인데 5,000명이 고속도로를 넘어서 타지역으로 통학을 합니다. 어느 한 여자학교에 가봤더니 한 한급이 58명인데, 여자고등학교면 숙녀입니다. 58명이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하에서 무슨 수준별 교육이나 수행평가와 같은 새로운 교수방법이 과연 적정하나, 지식정보의 양이 국력을 좌우하고 그야말로 창의력을 제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오히려 너무 호화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 비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도시지역의 개발택지지역에는 입주시에 70% 정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일반개발지역에서는 파악되는 대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수도권은 인구 유·출입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하고 또 확정된 학생을 놓고 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도대체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이 어떻고, 대학교육이 어떻고, 정보화교육이 어떻고 이런다는 것이 저는 지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페이지 21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수련원, 다목적교육실 등 시급하지 않은 교육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1,300여억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중략하고 '2,684억원을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건별로 수시 교부신청하도록 하고' 해서 '예산집행 부적절 사례로서 지적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그쪽으로 전용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특별히 경인지역이기는 합니까마는, 수도권이기는 합니까마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고 지역이기주의나 이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예산을 학교교실은 40명이 넘어가는 지역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소시켜 놓고 BK21을 하

든지 그야말로 국제화 뭐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자체의 비중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면서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範珍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비로 배정된 예산 38억 중에서 13억원만이 집행이 되고 25억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영어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연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66%가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연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가르칠 교사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은 충실히 집행을 해가지고 연수를 열심히 시켰어야 했을텐데 연수를 제대로 안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립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407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사립학교는 겨우 1.4%인 5억7,000만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았습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시다. 겨우 0.05%인 1,1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 했어요.

나는 교육부가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교육부의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봐요. 이렇게 할 때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저는 이것에 대해

서 교육부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술연구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감사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97년, 98년 연구비지원 내용 중에서 연구과제 120개, 110명에 대해서는 47억8,800만원 정도의 연구비가 잘못 지원이 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엉터리 교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소관 연구개발비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41억 중에서 26.2%인 11억원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보면 총예산의 42.5%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겨우 40.5%에 불과합니다. 작년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평균 55.7%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용 또는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연구개발비가 그냥 예산만을 생각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연구개발비가 연구보다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지 또 교육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동경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교육관 예산입니다.

97년에도 사업비 100억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불용이 되었고 또 98년도에도 202억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이 매칭펀드와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경에서 아마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경에서 모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2년 계속해서 사업비를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李在五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정도가 넘어서 여러분 좀 지루하지요? 졸리고 그러실 것입니다. 좀 하품도 하시고 기지개도 쳐시고 분위기를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가 98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이고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교육위원들과 또 교육부차관 이하 여러 국장님들 또 산하기관의 長들 다 모이셨는데 정말 우리가 흥금을 털어놓고 가슴을 열어놓고 1년동안 예산집행한 것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하였고 또 우리 尙元鍾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내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저도 다 원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달리 정말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지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지금 여러 견해가 있겠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보아서 크게 교육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입니다. 교사들의 사기에 걸맞는 교육부의 예산배정이 얼마나 되었는가? 정말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참 내가 한심한데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安相洙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하루에 오전에 두 학교, 오후에 두 학교 이렇게 네 학교씩 쪽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가 본 학교는 중학교인데 건물 지은지가 18년이 되었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보수나 도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자동식도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그것을 트니까 제가 2층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3층 4층에서 물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이것 이야기 안 하느냐 그랬더니 수차 이야기 했는데도 돈 없다고 안 고쳐준다고 합

니다.

한반에 50명, 48명 이런 학교하고 저기 아주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 한반에 35명, 37명 이래놓고 현대식 건물에 있는 학교하고 무슨 학교 평가한다고…… 그러면 교사 평가, 학교 평가 똑같은 기준 가지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도 줄 것이고 인사고과도 할 것이고…… 교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데 아침에 와서 산뜻한 건물 보면 기분도 산뜻할 것인데 그 교실 드나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교육의 전당이라고 보겠습니까?

모든 예산중에 교사의 사기진작 그 다음의 예산이 정말로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육해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들이 다 학교에 근무하셨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것 무슨 학교 평가다, 수행평가다 이렇게 하는 것 참 전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어디갑니까?

열린교육이다, 새물결교육이다 그래서 완전히 풀어서 놓은 교육이 지금 며칠전에 H.O.T 공연하는데 4만명이 몰려가지고 200명이 실신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부모가 야단쳤다고 자살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그것이 소위 열린교육세대내 새물결 교육세대내 해서 삼사년전부터 바람이 불어서 애들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교사들 교육에 관심없게 만들고 무슨 정보통신교육이다 컴퓨터교육이다 그래서 학교 가보면 386컴퓨터 쪽 놓고 일년 내내 한번 손도 안 대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1년에 교육부 예산이 몇 조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결산을 한다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열린 마음으로 자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학생과 교사들이 마음놓고 또 조금더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교육자료의 과학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98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얼마 썼다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시의적절한 예산을 배정을 했느냐? 너무 현장의 형편을 모르고 썼다 이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어느 학교는 65학급에 3,400명입니다. 그런데 25학급에 800명 학교하고 똑같이 교사와 교육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밀학급 이것은 돈 없다 소리만 하고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시 과밀학급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흔적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주고 받고 할텐데 또 며칠만 있으면 국정감사 나가서 각 기관마다 할텐데 정말로 이제 200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교육관료적인 생각을 정말로 현장중심, 여러분들이 지시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현장에서 점검한 것을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좀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교육의 관료주의가 어느정도인가 했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가니까 학교벽에 '위험하니 벽에 기대지 마시오' 라고 써놓았습니다. 학교벽이 위험하니 기대지 마시오 그렇게 써놓고 거기서 학생과 선생이 배웁니다.

그것을 제가 촬영을 하려 하니까 서무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의원님, 이것 촬영해 가지고 가서 교육부나 교육청에 따지면 왜 학교 관리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만 야단맞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장, 교감은 이것 하라는데 아니, 교장 교감이 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를 압니까? 이게 서무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를 이야기 합니까?

오늘날 학교사회가 아직도 행정관료주의적 사고에서 교육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17조가 아니라 170조를 때려부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는 이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쓸 때 써야 되지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결산을 할 때쯤 되면 금년도 정말 교육에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하고 투자해서 어떻게 했느냐 해서 뭐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남는 게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 해 보내면서 남는 게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질의하고 맨날 똑같은 답변하고 안 고쳐질 바에야 뭐하러 여기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여기 장관계시나 안계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차관님과 여러 국장님들 또 산하기관의 여러 어른들께서 교육의 현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적절하게 돈을 썼느냐 안썼느냐? 덜 쓸 때 더 쓰고 더 쓸 때 덜 쓴 것이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에 관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문제, 대학원중점지원사업문제, 출연기관지원사업문제, 교육정보화사업문제, 공고2·1체제문제 등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이것은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李在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日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오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느끼는 것은 연례행사와 비슷하다. 지난 해 것하고 별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한 열흘 전 쯤 위원들에게 보내주면 아마 우리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잘된 부분은 잘되었다고 지적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주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 쯤 보냈는데 저희가 무슨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 보좌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내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은 것 또 금년도와 같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를 그냥 연례행사처럼 지나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예산, 이 돈은 우리 국민의 피눈물나는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마 이런 관행으로 세입세출이 보고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만이라도 잘하고 이번에 국민의 정부는 엄청난 개혁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개혁 무슨 개혁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결산에 대한 개혁이 선행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차관께서는 유의하셔서 이 문제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심도있게 다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해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문서화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대한민국의 교육철학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철학이 과연 무엇이나, 잣대가 무엇이나, 향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은 교육목표가 뚜렷해야 되겠다. 교육부 산하에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역사철학에 대한 정의도 바르게 될 수 있고 산하기관 중에 정신문화연구원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요구만 하면 정말 바람직한 교육철학이 우리에게 제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뚜렷한 철학사상적 목표가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뚜렷할 때 우리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李在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철학과 사상이 뚜렷한 이후에는 환경입니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돼요. 개선되지 않고는 안돼요. 어떤 학교라고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통있는 공업학교인데 화장실이 옥외의 재래식인데 무슨 운동행사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예요. 최근에 대대적인 개수를 합니다. 금년도에 전국기능대회인가 경기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들이부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신건설, 둘째는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 셋째는 교원들에 대해 후생건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애국을 불어넣고 교육자로서 어떤 양심에 호소해도 집안에 들어서서 자녀들과 가족들

이 받는 봉급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아마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은 비교적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국의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런 뒷받침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정말 바로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 3대 건설목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업계 교육문제인데 지금 실업계 고교가 97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점차로 줄고 있는 것은 차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학생들 수가 중학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수가 절대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습니까마는 학교의 시설 또는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길러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 컴퓨터니 무슨 기자재 잔뜩 늘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고 먼지가 끼어있다. 그것은 지난 해에도 李在五 위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없이는 실업계 인력양성에 차질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보았는데 금오공고 출신인데 30대 초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380억인가 얼마에 외국회사에 팔렸는데 그 반액을 직원 78명에게 분배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에 안 갔어요. 저는 이 실업계 공고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고 특히 농고에 있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 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교과개편이니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농고에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학과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다는 교육이 앞서가야 합니다. 몇 개 대학의 공과대학과 외국어대학과 농생계통 대학이 일반대학이 안 하는 교육을 10년·20년·30년 앞질러 가지고 오늘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던 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고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농고는 멀지 않은 장래에 문을 닫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마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에 들어갔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컴퓨터 쪽으로 손을 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BK21사업으로 대학원중심 대학에 투자를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전력을 다하자 하는 저의 생각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한 두 차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었는데 수년 동안 보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단어는 다 골라서 쓰는데 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마는 경기 북부 쪽의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가평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의왕·군포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성남에는 특수학교가 두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근방이나 과천·의왕 근방에서는 장애아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 쪽 이야기를 지난해와 금년 내내 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특수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문제때문에 신설 교육대학이 설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경기교육대학 안양캠퍼스를 만들자 해서 도가 9만3,000평이라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경기교육대학 안양캠퍼스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무산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부가 안 하겠다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선생님들의 한 65%·70%가 지방교육대학 출신들입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운운하면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경기도 선생님이로 발령받아서 오면 결혼해서 부부가 오고 자녀가 오고 경기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경기도 교육대학에 진학한다 할 것 같으면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이 문제는 백지화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기교육대학 안양캠퍼스 문제를 추진하고 11억6,000만원의 설계비용까지 요구했던



것인데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가 거절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교육대학 안양캠퍼스 추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대학이 설립되면 지역마다 특수학교가 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 부지는 굉장히 외진 데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동시에 특수학교가 같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에 국비유학생을 많이 보냈는데 귀국하지 않고 그 나라에 잔류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국고를 지원했는데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국비유학생 계획이 55명이었는데 실제 선발한 학생은 39명으로 이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토론할 사항이 있는데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璘鎬 위원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源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李源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교부금과 양여금, 교육환경개선비용이 배정이 되어서 그 동안 집행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에 비교적 합리적인 배분책을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시·도별 인구대비해서 보면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이 상당기간 누적되어 가다보면 그 누적된 것에 의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천출신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지역의 경우는 인구대비해서 볼 때 합리적 배분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한 두 해 그럴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누적되다보면 경기도와 인천은 교육의 하드웨어를 꾸려나가는데서부터 혁혁 맵니다. 이 불균형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미 교육의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교육의 질적단계 쪽에 예산투입이 진행되는 반면에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냥 시설 채워나가는 데 급급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올해 새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반성과 이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 지출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량에 있어서는 특수교육부문의 예산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는 사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과거 연도에 비해서 올해 연도의 예산들이 조금 더 향상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이 비교적 선명치 못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올해는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이랄까 어떤 분위기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위기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어도 일을 잘 못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쪽으로 한 흐름이 잡힐 수 있겠고 반면에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거나 더 진작시키더라도 뭔가 행정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따라서 행정력을 강화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차기 예산에서 어떤 식의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에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각 교육청 발주로 해서 개별공사체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것을 교육부나 또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나 어떤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학교설립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 1년 간에 어떤 진전이 있는 것인지,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앞으로 각급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설립방안같은 것들에 진전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비용으로서 예산현액이 38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12억밖에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자그만치 25억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원칙과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 없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의 한 여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장차 예산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외민족교육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119억에서 자그만치 105억이나 불용액이 나오게 됐는데 한 쪽에서는 예산을 주어도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교토에 있는 한인학교들의 경우에는 한인학교가 매각되어야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하게…… 교토 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본에 있는 대단히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지역에 있고 또 우리 교포들이, 상공인들이 자금을 만들어서 만든 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폐교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것을 뭔가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교육기관으로서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진원을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벌써 국회와 행정부와 각계 요로를 통해서 진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필요한 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이 안

가고 있고 주는 데는 못하고 있는 이런 불균형은 우리가 정보를 잘못 입수하고 있거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불용액들만 많이 나와서 뭔가 안 되면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던 사람들 자체가 판단 미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놓고 1년 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해서 빨리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민족교육관은 어디나 민족교육관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절박하게 요구하는 데는 다 우리 교포들이 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의 책정과 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것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미스매치가 많이 있어 보인다는 점인데 차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토에 있는 한인학교와 같이 정말 대단히 절실하게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데들은 선 배정을 해주고 이런 데들은 조금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盧武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저는 질의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면 알 수 있을 일 같기는 한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오늘 결산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음 예산심사를 할텐데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서류와 보고서를 보고는 우리 교육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몇 년 지나면 교육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해 있을 것인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복잡한 수치이고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상황이 변화하면 가치관도 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교육의 목표가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돈 안 드는 정책도 변화할 테지만 돈드는 정책들도 따라 변화해서 돈

의 흐름도 따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과 추세를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를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차관님께서 인성교육과 창의력교육·고통의 감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정책으로 이런 교육의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있을 것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창의력교육 하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용이 뚜렷한데 인성교육 이러니까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교육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이것이 항상 정치할 때 공약에 나오고 공약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쟁이 되는데 그것이 그 사회의 교육비 투자라든지 교육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많이 하는 사회, 공적예산 말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느냐 덜 드느냐에 따라서 교육투자수준이 다르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고, 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의 재원조달 방도가, 예를 들면 우리처럼 예산의 지원보다는 또 다른 많은 재원조달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투자 비용은 그 비율이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비 몇 %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육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좀 욕심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교육비를 우리가 전부 죄악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치 못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출혈이라면 사교육비는 조금 나쁘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개인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부분도 그런 쪽으로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분석과 더불어서 우리 예산 총액에 대한 성격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교육부가 이러이러한 교육목표를 내세워서 총론에 있어서는 찬성하더라도 이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저항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보면 변화가 싫거나 아니면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육내용이 바뀌어 가면 변화에 따르는 과도기적인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요소 중의 하나가 미래를 위한 대비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 해결에 우선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대학교육에 들인 돈을 유아교육에 좀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느끼는 아주 심각한 갈등 중의 하나는 서울과 지방, 그 다음에 서울대와 지방대 이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의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방과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흔히들 우리가 다양화시대라든지 또는 다핵화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를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했지만 지방화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으며 그 동안 얼마만큼 새로운 배려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을 한서너 해라도 한번 대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식으로 도제제도를 기초로 한 산업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서고 실업교육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잠시 물어 보니까 실업계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전환이, 실업계 선생님들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해

서…… 李在五 위원님이 학교교육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대책이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큰 추세들을 열심히 연구하면 알 수 있기는 알 수 있을 텐데 국회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는 좀 큰 추세를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계화·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대강 돈이 새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보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주문이고 급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우리가 교육정책을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흐름 속에는 돈의 흐름도 항상 결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그 동안에 쓰였다 이러는데 물론 전문위원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또는 우리 사회에 이만한 변화가 있었다 라는 성과분석은 가능한 일이 아닌지? 진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예산이 투자된 곳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라는 부분도 한번 측정해 봐가면서 돈을 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李在五 위원님 말씀하실 때 386컴퓨터 놓고 한다는데 어찌면 그런 것은 오히려 사교육 영역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좀 거시적인 성과분석을 한 번 하고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방향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좀 기대한다는 뜻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尙元鍾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총론입니다. 각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전문위원들과 한번 토론을 깊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

셨는데 오늘도 유아교육문제로 아마 데모들을 하는 것 같고 28일에도 대규모 데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갈등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와 교육부의 그 갈등 이것은 그 차원에서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아·특수교육 지원 해가지고 유아교육 지원에는 1억6,200만원을 넣어 놓고 유아교육을 지원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성의를 가지고 유아교육을,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표시된 액수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직업교육, 실업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2 플러스 1이 실패를 했다면, 그리고 실업고등학교를 외면하고 전문대학을 외면한다면 4 플러스 1은 어떤지? 옛날과 같은 고등전문학교 과정은 어떤지? 외국은 요즘 직업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대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학생이 많이 몰려야 할 실업교육, 직업교육에 몰리지 않고 영똥한 인문교육을 해서 대학으로만 빠진다면 우리 사회에 동공화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요즘 우리 학생들 교복까지도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가서 지어 가지고 온다는 웃지 못할 상황을 볼 때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300만원을 여기 적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자원이 우리 나라에 350만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없지만 중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 3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만들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들을 지원해 주고 교육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것, 지금 있는 학생이 제대로 입학할 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1만여 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핑계로 350만이나 있는 저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결산과정에서 한번 꼭 짚어서 유념해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지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적자가 많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시 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동경제대병원도 보니까 적자는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자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게 마련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분당병원 건립이라든가 연구동 건립 등 건축에 350억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돈을 넣느라고 적자가 난 것인지? 진정 대학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정상적자가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은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경민족교육관 문제, 李源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불용액문제입니다.

동경민족학교나 민족교육관은 제일동포가 다니 는 데가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나라 대사관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상사원들의 자제들이 다니고 그 가족들이 가서 예절교육도 받고 그 래야 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연히 그 나라 동포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우리 나라 상사원들,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수혜를 입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돈이 걸히지 않는 거예요. 매칭 펀드, 매칭 펀드 해가지고 자꾸 불용을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동포에게 하는 배려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만 북한이 일본에 세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세운 것이 있습니까? 대만에 있는 백두학교하고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한테 투자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것 자꾸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전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도에 있는 한국인학교도 거기 동포들이 예절교육도 받고 다도교육도 받고 학교교육 외에도 많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큰 몫을 합디

다. 그런 데에 빛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동포들 주머니를 털려고 할 일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인간적인 행정, 가슴이 있는 행정을 좀 하셔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늘 법조항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규대학의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몇 분 위원님들로부터 추가로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3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상지대학교 金東均 부총장, 金淵東 전 교수, 鄭大和 법인사 무국장, 덕성여자대학교 崔永喆 이사, 한국의외국어대학교 曹在鉉 교수, 李良熙 전 재단 기획실장, 그리스도신학대학교 元萬石 이사, 金相奉 전 교수, 대구대학교 李鐘韓 대구시교육위원, 張華煥 전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상 10명에 대하여 10월13일, 10월14일, 10월15일 교육부 감사시에 각 해당학교 학내문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각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元雨 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교육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許男 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보고 이월액이 많은데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IMF관리체제로 상당한 비용절감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용절감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

로 사전에 계획이 미비하거나 철저하게 대비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민족교육관 건립 100억을 해마다 불용한 이유와 설립이 안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매칭펀드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정부가 다시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예산으로 이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고도 제대로 교육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은 특별한 상황으로 IMF체제하에서 경비절감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3억3,000만원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미수납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 부분은 KAIST의 채점처리수당을 잘못 계상을 해서 나온 일입니다라는 KAIST는 과학기술처 산하로서 과기처에 예산이 잡혀야만 저희들한테 이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간의 채권채무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에서는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사고처리로 해결을 하려고 그림니다.

과학교육기금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7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해마다 과학교육기금이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한 두어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로 사학에 돈 안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후에 공립하고 똑같이 주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교육부에서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8월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학교에 소위 특별활동지원비를 주지 않았습니까라는 이것은 비교육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장관님의 판단에 의해서 금년 9월부터 모든 사립학교에도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한 가지 더, 지금은 연구비를 주었는데 연구비로 안쓰고 시설비나 이런 데에 쓴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후에 조사를 해서 반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는 예산을 줄 적에 감액을 한다든가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런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金許男委員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다른 종합병원은 다 잘 되는데 대학병원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친절한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국립대학병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라는 서울대학 같은 데를 비롯해서 전남대학만 빼고서는 대학병원이 전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친절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라는 인건비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금년도 223명을 감축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이상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다음에 金貞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선거공약 때 교육재정에 GNP 6%를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현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확보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용, 불용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GNP 6% 확보 문제는 장관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수차에 걸쳐서 경제당국하고 특히 대통령님께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지고 지금 상당한 정도로 기획예산처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NP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金許男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철저히 처음부터 사전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이제 확보된 예산이 허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 사립고에 대한 특기적성지원비는 방금전에 보충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교육재정 6% 공약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살짝 비치셨는데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금년에는 GNP 대비 4.3%입니다마는 내년에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4.6% 이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6% 공약사항을 지킬 의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교육부는 물론 이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貞淑委員 그리고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설명을 하시면서 비교육적이라고 해서 장관께서 9월부터 주라고 그랬는데 비교육적인 것을 작년에는 왜 안주었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물론 교육부야 영원한 것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金貞淑委員 아니지요. 비교육적인 처사를 했다 그러면 교육부가 반성을 하고 작년에 사립학교에 못 준 것 그것을 소급해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9월부터 지원내역……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8월말까지 국·공·사립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미지급된 것, 지원해야 될 자세한 것을 해주시고요 미지급된 것도 소급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주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돈을 주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金貞淑委員 아니, 비교육적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교육부에서 한 일이 비교육적이어서 9월부터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왜 비교육적인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教育部次官 李元雨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만으로 작년에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金貞淑委員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안 주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법에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그것을 안 했다고 안 주었지 않아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일정한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하지 않을 때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金貞淑委員 아니, 임의조항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었다고요. 임의조항이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안했다고 돈을 안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교육적이더라. 그래서 주기로 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 문제는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년에 사용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아니, 차관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을 하시는데 금년 7월전까지는 임의조항이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수가 아니라.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별도로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주세요. 어떤 탈출구를 찾든지간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줘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대한민국의 교육 똑같이 균형있게

해야지 왜 1년반동안 돈을 안줍니까?

통계가 학생수는 한 23% 되는데 지원비율은 1.4%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평등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충분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차관, 지난번 전 장관께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해서 소급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이 회의장에서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왜냐 하면 그것이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래도 소급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金貞淑委員** 차관님, 작년에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회의장에서만 해도 수십번은 한 것 같아요. 국정감사 전에도 했고 국정감사 때에도 했고 그 뒤에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 말만 나오면 왜 돈 안주냐는 이야기를 수십번을 했는데도 그때는 아무 소리 안했어요. 아무 답이 없었지요. 임의조항인데 왜 안주냐 해도 답이 없다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오늘 처음 나왔네요. 비교육적이다. 안주는 것 자체가 극히 비교육적이라 우리 장관님께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육적이라서 안 주었던 것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까? 안 준 것은 비교육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야 해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을 준다고 해도……

○**金貞淑委員** 공교육과 사교육을 공평하게 다루어야지 어찌자고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임의조항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것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특히 교육부에서.

○**教育部次官 李元雨**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별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주세요. 별도로 얘기하는 것 소용이 없고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어긴 것이지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줄 것을 아주 강력히 건의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계속하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건의를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2001년 이후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확보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국하고 기간연장을 추진하면서 함께 지금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연말까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재래식 화장실이 많고 보수·개축을 해야 될 그런 위험한 시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자중심의 교육의 입장과 위배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금 중에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서류로 작성을 해서 지난 5월 안전진단 실시후에 철거보상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고 2·1체제, 당초 취지에 위배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만을 갖고 할 수 없이 진학을 하고 학과와 학교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사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實高 명칭변경이후 교육과정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2 플러스 1 工高體制와 아울러서 실업계 고교의 진흥대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薛勳 위원님께서 결산검토보고서의……

○**委員長 咸鍾漢**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承國 위원님께서 이용·불용액이 과다하면서 한쪽에서는 컨테이너에서 교육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리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예치하고 발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이자를 회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에 내려주면 지방의 자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로……

○**朴承國委員** 아니, 그 문제말이지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연말에 가서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명쾌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재원하고 지방비 재원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비 재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제때 안 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같은데 학교 하나를,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설계해서 착수하면, 아마 설계가 두달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를 했다가 국비가 나왔으면 착수를 하고 지방비 가지고 2차 기성고 줄 때부터 주면 되는데 그것을 100% 해놓고 출발하려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런 정책을 한번 대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예산집행이 끝에 가서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알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아까 집행기간도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3개월 내면 3개월 내로, 5개월 내면 5개월내에 되어야 되지 돈 주고 1년 있다가 집행하는 그런 것은……

○**教育部次官 李元雨** 압력의 수단으로는 좋을는지 몰라도 그 기간을 설정하면 사정변경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오히려 또 불편한 점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책임하에 국가예산과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朴承國委員** 그렇게 되면 내년에 틀림없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원중심대학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대

가 4위로서 반드시 서울대가 우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였다고 하면서 BK 검토 근거자료로 삼을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대학원중심사업에서 서울대학이 4위를 한 이유는 애당초 자연대 전체를 사업단으로 하고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임의로 세분화해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낮은 점수가 간 것입니다. 서울대가 결코 다른 것이 부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티가 들어가서 4위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렇지를 않습니다.

○**朴承國委員** 두 번째 154억이 있는데 왜 5등을 했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 내역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꼭 많이 간다고 그 대학원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연구개발비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고 예비비 중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운영비 지출명세서 제출을 요망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리고 예비비 재해대책비 48억하고 또 이쪽에도 32억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지출승인하는 데도 재해복구비 48억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도 32억이 있는데……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비비는 국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확보를 합니다. 재해대책이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주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확보를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 特交라든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朴承國委員** 알았습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다음에는 申樂均 위원이 안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安相洙 위원님께서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 학교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요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중

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朴範珍 위원님께서서는 초등영어교사 연수비로 38억을 책정을 했는데 25억을 왜 불용했느냐, 과도한 불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원어민교사를 1,200명을 초청하려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300명을 초청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연수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립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교, 이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에 재외민족교육관은 아까 모두에 金許男 위원님 답변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在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 위원님께서서는 교원사기에 걸맞는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뼈아픈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배정에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질의한 것은 서면답변하도록 같음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日柱 위원님께서……

○李在五委員 그 답변은 됐고 며칠전에 각 고등학교에 국악에 관한 특기적성을 하라고 150만원씩 전부 배정해 준 적 있어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있습니다. 학교당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학교당 150만원씩 무조건 국악에 관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라고 일괄배정을 했던데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교육부에서는 일괄배정한 것은 아니고 시·도교육감께서 그렇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국정감사

앞두고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입니다.

○李在五委員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인데 지금 누닷없이 150만원씩 주어 가지고……

○教育部次官 李元雨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하려고 우리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李在五委員 원론적인 것은 알겠는데 학교에 150만원씩 준 것은 강사료로 준 것 아닙니까? 대금이나 가야금이나 국악에 관한 것을 배우려면 학생들이 악기 하나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돈을 150만원을 받아놓았으니까 국악에 관한 특기적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는 없고 또 지원자가 있으면 악기 사달라고 학부형들한테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특기적성교육이면 몰라도 국악에 관한 특기적성교육하라고 딱 적어가지고 돈을 내려보내면 더구나 국정감사 앞두고 그렇게 내려보내면……

○教育部次官 李元雨 위원님께서 어떤 학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지원한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다음에는 金日柱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10일전에 배부를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후생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李在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환경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서 투자할 그런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그 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교육에서 학생이 감소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말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들은 특수교육은 다른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최대한 이쪽에 예산 배정과 여러 가지 교육개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에도 내년  
하나를 신설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의정  
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인데 남양주에다  
가 지으면 포천이나 연천은 일산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다가 짓는 것이 좋겠  
다. 우선 시군별로 못하니까 가평에서도 올 수 있  
고 의정부에서도 올 수 있고 동두천에서도…… 동  
두천이나 연천에서 남양주까지 어떻게 잡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알겠습니다. 입지선정문제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안양 얘기 제가 하지 않았  
습니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전혀 없어요. 비슷  
한 시인 성남에는 2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양에는 장애인이 5,650명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  
게 많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교육대학을 신설하기 어렵다고 하  
면 경기교대 안양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교  
육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  
가 11억6,000만원의 설계비를 요청한 그 사실 하나  
로만 보더라도 교육부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아닙니다. 지난번에 장관님이 수원  
에 가서서 교육감 보고 안 하겠다. 인천교대 안양  
캠퍼스는 안 만들고 독자적으로 경기교육대학을  
별도로 만들자……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지방자치체가 정착  
이 되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  
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기획예산  
처에 1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 요청을 했  
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일단 이번에 그 예산 따시  
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아직 정부안으로서는 포함  
이 안 되어 있는데……

○**金日柱委員** 다음에 합시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리고 고급인력양성을 위  
해서 국비유학생을 파견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귀국을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기 귀

국 또는 국고지원 환수책을 모색하자고 하는 말쑤  
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당초  
55명에서 39명이 선발된 다시 말하면 줄어든 이유  
를 말씀하셨는데 몇 개 분야는 지원자가 적었고  
또 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락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金瑋鎬 부의장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源馥 위원님께서 시·도별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배분의 불균형  
이 있고 이것이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이미 인식을 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천세  
영 교수로 하여금 연말까지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 답신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답신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  
균형이 없도록……

○**李源馥委員** 연말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것 반영되는 것 가지고 다음에 합리적으로 언제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이것이 배분하면 되기 때문  
에……

○**李源馥委員** 후년도 예산에나 반영이 되겠지요.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온다면서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연말까지 나와서 내년도 예  
산 집행하는데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李源馥委員** 심층적인 연구는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기본적으로 10  
년전부터 시·도 단위별로 전부 누계액을 합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별 비율이 전체 학생수 대비 몇 %  
나 되고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대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아야지 너무 불균형해 버리면 이  
것이 누적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 말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알겠습니다.

○**金瑋鎬委員** 차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면  
으로 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정의롭게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시·도별 교부내역을 보니까 96년도  
부터 98년까지 서울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데 부산은 96년도에 353억, 선거가 있었던 97년은 배 이상의 779억의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98년도 보니까 작년이 됩니다. 418억으로 절반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96년은 747억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절반으로 354억, 작년에는 230억, 96년의 3분의 1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광주도 97년은 364억인데 작년에는 약 150억이 떨어진 213억, 인천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96년은 1,018억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937억, 작년에는 절반도 못미치는 456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96년에 222억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220억, 작년에는 배 이상으로 457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특별한 변동이 없고 경상남도도 변동이 없는데 부산이 의외로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겠지만 형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현 정부에 대해서 크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부산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라북도는 거꾸로 배가 올라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질병인 지역감정이라든가 지역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연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에 당했던 것만 해도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고 억울한데 현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특히 교수 출신의 김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유념해서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도 결국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든지 지방관서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정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액 측면에서 보면 1996년 5,155억, 선거있는 해에는 5,462억 그리고 작년에는 5,649억, 9800만원인데 절반으로 떨어지고 배로 올라가는 이러한 식

은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몇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을 즉석에서 안 해주셔도 좋고 다음 기회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각 시·도에 오해 없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등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부나 아니면 산하기구로 별도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문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제주도만이라도 시설을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이미 검토하기로 했다 했거든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지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李源馥委員** 그런데 제 질의는 그래놓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무엇이 진행되었는가를 이야기해 보아라 이것이거든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일단 모든 시·군에 있는 시설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집중관리하는……

○**李源馥委員** 제주도만 합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체제개편은 일단 거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다른 데는 없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서울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외민족교육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교토 한인학교가 매각위기고 폐교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매각이나 아니면 폐교위기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馥委員**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李源馥委員**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教育部在外同胞教育擔當官 金錫賢** 교토한인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 지원을 한 입장에서 그 쪽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회들이 올해 주일 한국대사관하고 오오사카 총영사관으로 하여금 교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흑자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조건부 통보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중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다음은 盧武鉉 위원님께서……

○**李源馥委員** 잠깐만요. 빠진 것이 있어요. 특수교육에 불용액이 많은데……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하에 차기예산 편성 때에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 어떻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갈음하겠다는 말조차 없이 넘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답변했기 때문에……

○**李源馥委員** 그래도 李源馥 위원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고 나가는 것이지 왜 질의한 것 자체를 빼버려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죄송합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교사 연수 불용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盧武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유치원교육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1억 몇 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12억을 일단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도 아울러서 또 112억을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아교육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실업교육이 위기에 있고 실업고와 전문대를 외면하고 있는데 4·1체제는 어떤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즉답을 하기 보다는 다소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에 있어서 방송통신 운영지원이

1억밖에 없는데 자원은 350만이나 되는데 턱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강화에도 물론 신경을 쓰면서 소외된 계층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적자가 많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인건비가 주요원인이 되면서 금년도에 223명을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아까 金貞淑 위원이 말씀하신 학교 운영비가 98년도 것은 이미 불용처리가 되었던 이월이 되었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99년도 분, 금년도 분은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주고 9월1일부터 주는 것이 맞지 지금도 살아있는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상당한 부분이 이미 하반기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사립학교까지……

○**朴承國委員** 아니, 그때 예산 세울 때 사립학교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다 세웠는데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전반기에 사립을 안 주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공립에 다 나갔습니다.

○**朴承國委員** 98년도 작년 이맘 때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다 사립학교하고 계상해 가지고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다 이런 얘지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토론한 중에 교육건설, 후생건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전에 1번은 정신건설입니다. 교육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정신하고 시설하고 후생건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중에 유아교육에 대한 것 유치원 교사에게 수당을 3만원씩인가 지불하자고 그 전에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것이 불행하게도 아직 예

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지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던데요. 유치원이 아주 어렵더라구요.

○**教育部次官 李元雨**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薛勳委員** 나는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들러오느라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참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정부 예산을 아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을 탓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매월 자세하게 적시를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해버리면 이것은 예산을 아낀 것인지 아니면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못 쓴 것인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산을 아껴서 불용액을 남겼다면 그것은 잘했다고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비난받아야 할 사항과 권장해야 할 사항이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결산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는 것이 우리들 국정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아끼는 것은 권장해야 할 사항이니까 불용처리한 데 대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잘 했다. 예산을 이렇게 아꼈구나, 세금을 이렇게 아꼈구나 이렇게 해야 할 부분과 왜 불용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金貞淑委員**薛勳 위원께서 오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아껴서 안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치밀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것이지 왜 돈을 더 많이 얻어 냅니까? 그것부터가 애국심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비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야지요. IMF가 갑자기 왔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받고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아낀 것은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접근방법이고 일단 불용액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예산을 왜 처음에 욕심을 내고 많이 땀어요? 이 돈을 더 급한 데다 쓰게 놔두어야지 무엇때문에 따 놓고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불용액은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薛勳委員** 논리적으로는 金貞淑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金貞淑 위원님과 같은 저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教育部次官 李元雨** 하여튼 이용과 불용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李在五委員**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金日柱 위원께서도 경기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연구검토할 일입니다.

경기 동북지역은 포천 쪽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부지역은 은평구부터 시작을 해서 고양·일산·원당·과주·금촌·문산 여기에는 전문대학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북부지역의 진관내·구파발 이 쪽이 마침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에서 디자인이나 컴퓨터같은 기술계 전문대학을 하나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산 사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쪽에 4년제 대학은 어렵더라도 2년제 기술계통이나 예술계통의 전문대학 하나를 정부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깊이 연구검토해서 다음 국정감사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교육부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정부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의견을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존경하는 威鍾漢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국정심의회 바쁜 일정속에서도 교육부 소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접수하여 주시고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소관 결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부 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진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金德中 교육부 장관,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물론 각종 교육정책에도 적극 반영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서울大學校實驗室安全事故및收拾對策經過報告 (18시45분)

○委員長 威鍾漢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대학교실험실안전사고및수습대책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禹鍾天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學校大學院長 禹鍾天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제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국민과 특히 위원님 그리고 당국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토요일 11시40분경에 공과대학교 원자

핵공학과 단극발전실험실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반파쇄실험 중 알루미늄 분말이 점화되어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박사과정 4년차 김태영군과 박사과정 1년차 김영환군, 석사과정 1년차 홍영걸군이 심한 화상을 입어서 그저께와 어저께 사망했고 오늘 영결식을 마쳤습니다.

또 산·학으로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던 신호민양이 화상을 입어서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병세호전되어서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해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동 실험을 위해서 특수조립된 철골조 조립식 건물로 피해추정액은 8,5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나면서 즉시 공대 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처음에 치료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끼는 세 제자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서울대학에서는 환경안전연구소라는 것을 두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책자와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각성시켰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성해서 보다 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생에게 이 점 재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李在五委員 지금 대학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관계자로 혼자 나오셨습니까?

○서울大學校大學院長 禹鍾天 예, 사실은 총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영결식에 가시려고 하다가 편찮으셔서 못 가시고 제가 대신 갔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에게는 조의를 같이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을 발표할 당시에는 죽은 학생들이 없었나요?

○서울大學校大學院長 禹鍾天 그 당시에는 사망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과문을 준비한 것은 19일인 일요일 오전이었고 첫 사

망이 아마 9시20분 경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한 10시경입니다.

○李在五委員 사망을 보고받은 것이 19일 10시입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예, 처음 사망한 김태영군이 9시20분경에 사망을 했는데요.

○李在五委員 그것이 19일이지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예, 19일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럼 이 사과문은 몇 시에 발표했어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저희가 준비해서 저 쪽으로 넘긴 것은 한 10시경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도자료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제 말씀은 이 사과문을 발표할 시점에는 이미 첫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지요? 김태영군이 9시경에 사망했으니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10시경에 듣고 난 다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그 전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과문이 나간 다음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총장명의로 나간 이 사과문이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질에 비해서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사과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맥이 전부 네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았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명의로 나가는 사과문으로서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사과문이나 경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고가 나서 발표한 것이고 박사과정 학생 세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에 따르는 서울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원인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반파쇄실험 중 알루미늄 분말을 종이통에 넣다가 사고가 발생·연쇄폭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 조립식 철골조 4층입니다. 외벽이 판넬로 되어 있고 위도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이런 종류의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내용의 실험을 하기에 철골조 4층의 조립식에다 지붕은 판넬이고 외벽도 판넬인데 여기에다 이런 실험실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건물을 별도 건물로 이용했을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상 이 건물이 한 3층 정도의 높이가 되고 길이가 한 사 오 십m 되고 폭이 한 30m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면이라든지 실험의 특성상 그런 특수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在五委員 대학원장님, 이번 BK21도 서울대학교의 이공계통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른 대학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국립대학입니다. 전 예산의 거의 전부를 서울대학이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렇게 서울대학이 안전에 무방비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박사과정 학생 세 명이 사망을 했고 산·학연구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측에서 적어도 보직을 맡은, 직접 담당하는 이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물론 공대학장·대학원장·대학총장 세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질 일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貞淑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원장님, 실험실의 안전수칙은 학교측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었지요, 안전수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 데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저희가 연 2회 정도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루에 한 9시간씩 해서 이틀동안 대학원 신입생을 위주로 해서 연구안전교육을 시



키고 있고 올해에도 초기에 한 700명 그렇게……

○**金貞淑委員** 제가 묻는 것은 안전수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할만한, 미리 예방을 할만한 여러 가지 점검하는 이런 수칙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1년에 한 두 번 하신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되고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이것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金貞淑委員**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는 실험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이 학교측에서 마련한 안전수칙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온 사회가 안전무감각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가스가 펄펄 폭발하고 한시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안전을 추구해야 될 과학적인 서울대학, 전 국민이 정말 서울대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학교측이 가지고 있는 안전수칙도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리자들과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정기적인 안전관리는 몇 개월만에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난 다음에 완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125쪽 정도 되는 수첩형 실험지침서를 각 대학원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의 길잡이」라는 책은 한 370쪽·400쪽 정도되는 A4 용지보다도 큰 책인데 그 책도 저희가 각 교수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그것을 숙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700명 정도 왔다는 것은 위험실험을 하는 학생들의 한 80%에 해당되는 숫자이고 돌이켜 보건대 강제규정이 없이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삼 반성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정기적인 안전관리는 안 했지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정기적인 안전관리는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어디서 나와서 하셨어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저희 시설과하고 기술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학교 자체에서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예.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가 서울대학에 아주 표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지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요.

안전수칙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학교 측이 마련한 안전수칙을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안전관리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은 무엇이였는가 그리고 아마 교육도 보나마나 매우 형식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교수들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은 아마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항상 겪는 일입니다마는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지 지금 대학원장님은 슬픔에 빠진 비통한 마음으로 여기 오셔서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잇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그것을 아까 李在五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대학의 명예를 걸고…… 온 대학의 모든 희망적인 것, 또 바라는 것들은 아마 다 서울대학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립대학 중에 제일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서울대학이 그것도 J라는 회사의 용역을 받아서 완성될 날을 시간을 맞추느라고 혈레벌떡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맡아다가 일을 해야만 될 형편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작동을 했습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 진화는 자체에서……

○**金日柱委員**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해서 천장에 있는 소방장비가 작동해서 불을 끌 수 있었나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습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서울대학에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습니다. 그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소화전 등을 사용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1차 진화는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신문을 보고 스프링쿨러가 바로 작동했다면 이런 피해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불타고 남은 잔해를 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스티로폼이 단열로 들어갔더라고요. 스티로폼은 막바로 화약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실습을 하는 장소에 조립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암면이라든가…… 암면은 단열이 아닙니까? 암면은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사진을 보니까 스티로폼이 그냥 같이 폭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건물에…… 조립식 건물도 요즘 선진국가의 조립식이라는 것은 호텔도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나기 때문에 벽돌을 안 씁니다. 전부 조립입니다. 그 완벽한 건물이에요. 5도 6도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암면을 썼습니까, 스티로폼입니까? 제가 내일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은 철근 골조로 해가지고 한 3·4층까지 높게 해서 지은 건물로 소위 요새 상품이름으로는 아이스 월이라는 제품을 써서……

○金日柱委員 아이스 월은 스티로폼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이스 월은 조금 탄탄하기만 하지 스티로폼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거기 벽에 들어간 단열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주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대학에서 그 위험한 실습을 하는 건물이 조립식…… 일반 비닐하우스나 얼음창고 짓는 데도 단열재를 석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위험한 실습을 하는 장소에 아이스 월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스티로폼은 부서지는 것이고 아이스 월은 탄탄해서 잘 깨지지 않아

요. 그저 그런 정도이지 폭발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같이 와 계신 분은 잘 아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는가 그러면 앞으로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나는 폭발하는 그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이 이것은 인재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실험실습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폭발에 부서진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아마 제자를 잃은 대학원장님은 애석하기 이루 말할 데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신문을 보고는 참 가슴 아프고 명을 달리한 분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은 선배들이 잘못해 가지고 자라나는 후진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릅니까?

○委員長 咸鍾漢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대학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황 보고만을 하신 것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형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날을 잡아서 서울대학교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현장에 가서 총장 임석 하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오늘은 저희가 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정리 좀 하고 갑시다.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지금 대학원장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장님이야말로 여러 모로 진짜 고명하시고 고덕하신 분 앞에서 위원들이 사고가 난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질책성이라든가 추궁성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질의를 드리기도 저희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분 조금 몇 가지 절차적인 확인을 하고 싶은데 결례가 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현재 서울대학 측에서 원장님 혼자 나와 계십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행정 쪽에서 몇 분 같이 오셨습니다.

○李源馥委員 같이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현재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십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지금 사무국장님과 시설국장님 직무대리께서 나오셨습니다.

○李源馥委員 대학입니까, 대학원입니까?

○서울대학교대학원장 禹鍾天 대학본부입니다.

○李源馥委員 그것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러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서울대학교대학원장 禹鍾天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영결 절차가 있었고 또 회의 중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事務局長 鄭奇彦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李源馥委員 직접 받으셨습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원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서울대학교事務局長 鄭奇彦 교육부를 통해서 관리과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대학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을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李源馥委員 교육부에서는 누가 그렇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永植 예, 고등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님과 통화했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이 오기를 총장님이 배석을 하시고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서울대학에 전달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면 서울대학 측으로부터 총장님께서 참석하시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永植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서울대학이 국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에 양해가 될 사항인지 아닌지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李源馥委員 국회 측에 양해를 구하고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金永植 제 말씀은……

○李源馥委員 국회 측에서 누군가가 총장님이 정히 몸이 불편하시면 오늘 총장님 대신에 대학원장님이 대표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양해했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거야 절차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요.

○李源馥委員 누가 양해를 했습니까? 대학원장님

이 하셔도 좋다고 위원장님이 양해하신 것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렇지요,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하고 아침에 영결식도 못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현황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잘 아느냐, 대학원 학생들 문제니까 대학원장이 잘 안다고 그러니까 대학원장이 나오신 것이지요.

○李源馥委員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표성으로 절차적으로 양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와서만 보고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대 국민적으로 최초로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이거든요. 사고경위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국회의원 개개인들한테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의 말하자면 관할 사령관이든 관할 경영책임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몸이 불편하신 간에 저는 양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권자로서 오신 분들이 너무 설명하기에 부족한 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선 여기에는 공과대학문제가 있으니까 공대학장님도 오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습니까마는 관련된 여러 분들이 오셔야 위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위보고서도 보면 '원인' 이렇게 해놓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반파쇄실험 중 알루미늄 분말을 종이통에 넣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연쇄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원인은 말하자면 서울대학 측에서 만든 규명이지요?

제가 이것은 원장님께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늘 불 적에 원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느낌상예요.

지금 여기 사고경위도 보면 '정기형 교수에 의하면' 이렇게 해놓고 '화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규명을 위한 감식을 실시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해 관계 당사자 간에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 국민의 앞에서 서울대학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데 원인을 일방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있다고요.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어느 특수한 몇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금 현재 대단히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총장께서도 안 나와 계시고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관계자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 않으면서 원인 같은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한다고요. 저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하는 것은 오늘 이것으로써 국회가 보고 받았다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간을 잡아서 교육부 본부 할 때라든가 다시 3당 간사간에 날짜를 정해서 총장께서 몸이 좀 쾌유가 되시고 또 지금 여러 모로 마음이 불편하시고 참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정해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정식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더라도 다시 날짜를 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薛勳委員 지금 총장님이 입원해 계십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아닙니다.

○薛勳委員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申樂均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신병인가요, 지병인가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그것도 지금……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申樂均委員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해보십시오.

○薛勳委員 모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영씨 부친께서 보상금 전액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김영환, 홍영걸 두 분은 보상금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금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보상금문제는 유족측에서 별로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또 교수들의 성의를 다해서 애도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薛勳委員 지금 대학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처지가 못되는 모양입니다.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습니까?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울대학교大學院長 禹鍾天 제가 알기로는 최고 1인당 1억까지로 배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申樂均委員 저도 자료준비 차원에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총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고 싶고 우선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받고 그리고 다시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안전점검을 언제 실시했는지? 또 누가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가장 최근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폭발성 있는 위험한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실험책임자, 지도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교수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학교당국은 말하자면 총장, 대학원장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 그런 일체의 것 그리고 거기에 소방과 안전관리 시설은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 정도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대학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어느 대형화재하고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대학도 아닌 서울대학교에서 그것도 석·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과학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학당국이 안전만 불감증인 것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뵈니까 준비가 덜 되었기도 했겠지만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3당 간사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도 모두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서울대학교 당국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정리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나오셔서 정확하게 진상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대책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安相洙
李壽仁	李源馥	李在五	金瑋鎬
盧武鉉	朴範珍	薛勳	申樂均
李榮一	金光洙	金日柱	金許男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尙 元 鍾
---------	-------

○出席國務委員

教 育 部 長 官	金 德 中
-----------	-------

○出席政府委員

教 育 部	
次 官	李 元 雨
企 劃 管 理 室 長	李 李 基 雨
學 校 政 策 室 長	沈 沈 珖 漢
平 生 教 育 局 長	車 車 炫 直
高 等 教 育 支 援 局 長	金 金 永 植
教 育 自 治 支 援 局 長	金 金 王 福

○政府側出席者

教 育 部	
公 報 官	李 海 英
監 查 官	具 具 寬 書
教 育 政 策 企 劃 官	李 李 承 茂
國 際 教 育 協 力 官	高 高 用 一
教 育 課 程 政 策 官	李 李 修 一
教 育 課 程 政 策 官	李 李 修 一
教 員 政 策 審 議 官	金 金 正 基
總 務 課 長	姜 姜 秉 雲
在 外 同 胞 教 育 擔 當 官	金 金 錫 賢

○其他參席者

國 史 編 纂 委 員 長	李 成 茂
教 員 懲 戒 再 審 委 員 長	金 東 成
國 際 教 育 振 興 院 長	李 成 一
國 立 特 殊 教 育 院 長	朴 慶 淑
學 術 院 事 務 局 長	金 孝 秀

유네스코韓國委員會 事務總長	權 泰 竣
大韓教員共濟會 理事	金 河 準
私立學校教員年金 管理公團理事	琴 承 鎬
韓國精神文化研究 院	韓 相 震
韓國大學教育協 議會理事	李 鉉 清
韓國私學振興財 團理事	金 在 演
韓國學術振興財 團理事	朴 錫 武
韓國專門大學教 育協議事務總長	姜 成 遠
韓國教育放送院 長	朴 興 壽
韓國教育學術情 報院	徐 三 英
서울大學校病院 長	朴 容 眩
韓國教育開發院 長	郭 柄 善
韓國教育課程評 價院	朴 道 淳
韓國職業能力開 發院	李 茂 根
서울大學校大學 院	禹 鍾 天
서울人學校事務 局長	鄭 寄 彦

【報告事項】

○通知

教育委員會所管1999年度國政監查計劃

9월20일,國會運營委員長으로부터 원안대로承認되었다는 通知가 있었음.